

---

# 2021년 제3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9. 3. ~ 9. 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9. 3.	시청률	0.000

## 【총 평】

시니어를 위한 정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 이색적인 전시 소개, 시의성에 맞는 볼만한 여행지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리포트를 전달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국민리포트의 취지에 적합한 주제로 주목도를 높였고, 신안군 왕새우 출하 소식은 현장감이 살아있는 생생한 전달력을 보여주었다. 또 전통 방식 그대로 강화도 화문석의 맥을 잇는 송해면 마을, 외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는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 '나는 행복한 직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노원구는 공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어르신 기사가 '아이편한택시'로 임신부, 영유아 자녀를 위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원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 귀가길 안심이'앱을 제공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말' 개발한 대학생들  
가천대학교 창업동아리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양말 사업을 소개했는데, 단추 개수로 양말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판매 수익은 제품을 제작해 기부하는 등 뜻깊은 사업과 선행이 선한 영향력 차원에서 가슴 훈훈한 소식이었다.
- 허브 농사지으며 행복한 '3대 귀농 가족'  
충남 예산에서 유경민씨 가족 3대가 허브 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주변사람들의 도움, 귀농지원센터의 지원, 청년창업농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스마트팜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정착이 이뤄지기까지 주변 도움에 초점을 둔 접근이 좋았다.
- '전통방식 그대로' 강화 화문석 맥 잇는다.  
강화도 송해면에서 왕골을 수확하여 쪼개고 말리는 작업을 거쳐 돗자리를 짠다. 당산 마을 주민들과 지자체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화문석 문화관에 작품들을 전시해 두고 각종 공예품도 마련해두어 그 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전국 최대 생산, 신안의 명물 '왕새우' 출하  
왕새우 제철을 맞아 전남 신안의 왕새우 양식장에 가서 취재하였다. 왕새우를 직접 양식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방문하여 맛있게 조리하여 먹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왕새우 수확기, 수확량, 양식장의 규모, 영양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 작품 없는 전시회, 첨단 기술로 '국외 소재 문화재' 만난다.  
외국 곳곳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태블릿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이 주목을 끌었는데, 증강현실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는 방법도 창의적이었고, 반출 문화재에 대한 반환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9. 3.	시청률	0.000

### 【총 평】

‘미래도약을 위한 지원 -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업의 채용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태를 짚어보고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을 부문별로 상세히 알려줘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청년세대의 어려운 실태, 정책 배경, 해법으로서의 정부 정책 등의 구성으로 설득력을 높였다.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부문별로 정부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했고, 청년의 고용 불안정이 교육, 주거 등 생활전반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청년세대의 삶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국내외 코로나19 현황을 전하고 청년특별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알뜰신잡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 자격과 일정 등을 안내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세대는 코로나19라는 돌발적 변수로 힘들어하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은 감소하고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자동화로 청년 취업 기회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고용 불안정은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했고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수당 혜택 대상을 늘렸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은 자산형성 및 생활비, 주거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로는 청년 창업자금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테크스타 보증한도를 늘린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신설했고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했다. 또한 청년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주거정보 플랫폼도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 복지, 문화 지원 부분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일종의 시드머니 구축을 도와준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매칭한다. 더불어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조성한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바우처도 새롭게 등장했다. 청년 교육 분야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장학금의 중산층 지원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고 고졸 청년을 위한 고졸 청년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알뜰신잡’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가구, 기관추천, 다자녀가구로 구분하며,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요건을 따져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한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9. 3.	시청률	0.035

### 【총 평】

‘반딧불 마을의 행복전도사 김반장 - 전남 영광’편은 영광 육창반딧불 마을을 소개했다. 엄마와 함께 귀촌해 꽃을 가꾸고 마을 어른들과 교류하는 주인공의 느리지만 여유 있는 삶이 인상적이었다. 아름다운 영상과 꽃 풍경들, 소박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서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행복 전도사 주인공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하는 여러가지 체험은 선한 영향력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한옥 한 달 살기 체험이 귀농이나 귀촌을 위한 사람들의 준비 과정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시작부분에서 풍력 발전기 날개를 배경으로 영광의 지리적 조건을 알려주었고, 칠산대교와 주변 풍경들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주목도를 높였다.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우화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옥에서 꽃차를 나누며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전남 영광은 언뜻 보면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보이지만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등 여러 종교의 유적지를 품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전남 영광의 육창 반딧불 마을에는 귀농 12년 차 주인공은 오랫동안 영광에서 살고 싶은 염원을 담아 한옥 ‘우화담’을 짓고 그 마당에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며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른 아침 향이 가득한 꽃을 따서 그 싱싱함을 그대로 담은 차를 만들고 차를 내려 마시면서 한껏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꽃을 채취하는 장면에서 이어서 자신처럼 귀농을 고민하며 한 달 살기를 하러 오는 외지 사람들을 위해 가꾸는 텃밭의 풍경과 ‘우화담’을 청소하는 모녀의 모습 등을 소개했다. 마을 회관을 찾은 주인공 모녀는 농사일로 지치고 힘든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지력을 높여 치매 예방에 좋은 공예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며, 마치 어르신들을 딸처럼 다정히 살피드리고 있다.

한옥을 짓다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꽃을 키우고 말리면서 꽃차 소믈리에를 공부하고,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그때그때 주어진 것을 하다 보니 관광해설사, 천일염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많은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모습이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주인공은 자신처럼 귀농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화담’을 한달살이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오신 분들을 위해 텃밭과 꽃차를 가꾸는 등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사화가 활짝 핀 동네 꽃밭의 개화 소식을 SNS에 올려 영광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영광의 울창한 숲길을 조망하며 “살다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빠듯한 일상 속 인생의 쉽표가 되어 줄 여행, 전남 영광입니다.”로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9. 4.	시청률	0.120

### 【총 평】

‘3초면 행복해지는 마법의 시골집 유바카하우스’편은 충남 부여로 귀촌한 50대 여성이 90년 된 낡은 흙집을 단장해 맛있는 부여의 맛으로 시골밥상을 디자인하는 독특한 일상을 그려 몰입감을 높였다. 지금껏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왔던 밥, 식재료를 새롭게 디자인하며 행복을 느끼는 귀촌 3년차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특히 스스로 가꾼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이름을 짓고 스토리를 만드는 ‘밥디자이너’의 독특한 소재가 흡인력을 높였다. 영업적인 측면보다 살고 있는 공간, 시골집 등에 만족하여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쉽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낙천적 소확행 일상이 그려져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가꿔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귀농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3초면 행복해지는 마법의 시골집, 유바카하우스’편은 충남 부여군의 한 시골집에서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행복을 만끽하는 귀촌 3년차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했다. 유바카 하우스의 식재료부터 밥 디자인, 귀촌 동기부터 새로운 제자의 귀촌, 소일거리 등의 일상을 소개했다. 특히 지금까지 먹어왔던 식재료와 음식을 다시 보게 하는 마음가짐을 디자인 하는 것이 ‘밥디자이너’이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재료와 마음 그날의 분위기와 이야기까지 음식에 담아내는 것이다. 가지를 잘라 햇볕에 말리며 독서 삼매경을 즐기는 여유로움, 잔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춤추는 영상, 호박잎 보자기로 김밥 포장 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주인공의 시골집 마당에는 각종 꽃들과 유실수들이 그득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과 모양을 달리하여 찾아오는 꽃들은 주인공에게 있어 천연의 식재료다. 유바카 이름은 박하향기처럼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본인에게 선물한 이름이다. 주인공은 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일명 ‘밥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부여로 왔다. 하루 한 팀의 손님을 받아 디자인된 밥을 선보인다. 도시 재생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충남 부여에 왔다가 지금의 시골집이 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착해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운영하며, 향후 민박집으로의 변신도 준비하고 있다.

주인공은 밥 디자이너뿐 아니라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EQ를 깨어주는 일명 ‘칭얼북’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종이책이 아니라 광목천을 활용한다. 아이들이 책을 구기더라도 문제가 없다. 더불어 도시재생에 있어 먼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재생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들과 밥도 함께 나눈다. “행복은 별게 아니라 풀도 뽑고 작은 정원에서 꽃 만 바라봐도 행복하다”, “누가 토마토에 맛 건전지를 넣어 놓았나봐 하하” 등 주인공의 재담과 익살스런 이야기가 흡인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9. 5.	시청률	0.066

###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 폐기했던 영변 핵시설 재가동 포착! 그 속내와 북미관계 전망’을 다루면서 국제적 관심과 어느 정도 위험이 되는가를 논의해 보았고 ‘이슈 텔링’은 ‘작은 통일의 공간, 개성공단 편의점에서 평화를 말하다!’를 방송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가동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돌리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분석이 새로웠다. 2018년 9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미국의 상응적 조치에 따라 결정한다는 가변성을 두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러 국제 관계가 발생하는 탓에 북한에는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의 대화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포기를 제의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 포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여 회담이 결렬된 후 그 여파로 아직까지 북미관계가 냉랭한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내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8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자로 가동에 필수적인 냉각수가 배출되는 인공위성 사진과 올 2월부터 7월까지 화력발전소의 가동 정황 포착 등을 북한이 화력발전소를 가동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정황상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이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시작이자,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며 우리나라의 약 분당이나 일산 정도 크기의 도시에 모든 발전소, 군부대, 연구소 등을 갖춘 핵발전 맞춤형 도시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2차 협약’ 이후 계속 미국의 회담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별다른 발표가 없었고,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받자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핵 확산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핵 협상 단계를 최대한 세분화시켜 최대한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매우 타당성이고 국민 정서에 안정감을 주었다.

‘이슈텔링’은 작은 통일의 공간인 개성공단에 편의점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흥미가 증폭되었다. 2008년부터 8년 간 북한의 개성공단 내 편의점에서 근무한 팀장이 출연해 북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겪은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백산수의 수원지에 대해서 북한 직원들이 신기해했고,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아이스컵과 믹스커피였는데 아마도 북한 직원들도 커피의 맛을 즐겼을 것이라며 편의점의 다양한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9. 5.	시청률	0.017

### 【총 평】

‘화장하는 남자! 남녀를 따지세요?’편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해진 최근의 사회적 현상과 갈등을 다뤄주었다. 특히 남자의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젠더 경계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적정선에서 합일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획의도를 살렸다. 남자의 화장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 드랙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생각해 보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드랙아티스트가 남여 구분없이 활동이 가능하고, 직업으로서 예술적 행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는 80대 시니어와 청년층 MZ세대간의 가치관 충돌을 부각시키고, 주인공들의 논쟁을 통해 역지사지 소통으로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포맷으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차이를 좁혀 화합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끈대할매는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주변을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만으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끈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건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각종 CF와 뮤직비디오 등에 등장해 화제가 된 드랙아티스트 나나영롱킴이 출연했다. 드랙아티스트는 사회에 주어진 성별의 정의에서 벗어나 과장된 메이크업과 퍼포먼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끈대 할머니는 나나영롱킴의 등장에 놀라지만, 그와 얘기를 나누며 드랙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사회의 여러가지 다양함을 받아들인다. 요즘은 젠더리스 시대로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다. 남자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다. 드랙에 대해 '여장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랙이 단순히 남자가 여자처럼 꾸미는 것은 아니며, 자기가 평소에 나타내고 싶었던 모습을 자체를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은 사회가 정한 성 고정관념이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직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드랙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독특한 외관으로 행사에 바람잡이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드랙 아티스트 자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끈대 할매로 출연하는 80대 배우 김용림 진행자는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 노년층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손주같은 젊은 패션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통크게 수용하는 포용력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 “요즘 애들 말이야”하며 끈대로서 편잔을 하다가도 취향은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그래도 주위에 신경은 써야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모습이 잘 표현됐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9. 5.	시청률	0.047

### 【총 평】

‘홍포한 여름의 기억 - 제주 북부 예비검속 사건’은 4.3이 이어지던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예비검속에 따라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제주도경찰국이 요시찰인 및 불순분자를 일제히 구금할 것을 지시해 경찰서 유치장 및 주정공장 창고 등에 예비검속자들을 구금했다.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공항인 정뜨르비행장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하거나 산지향 부근 바닷가에 수장했다. 특히 제주 북부 예비검속 사건은 권력을 가진 자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협박과 압력을 가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 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2차대전이 일어나자 전시체제를 구축하면서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예비검속법은 해방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바로 폐지됐으나 1948년 10월 이후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주요 대상은 해방직후 인민위원회 간부, 3·1 사건 또는 4·3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거나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 처형한 것은 인권의 말살이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혐의자를 미리 잡아 가두어 놓는 일’이라는 본래의 뜻보다는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진 것이 사실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 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요시찰인 및 불순분자를 일제히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계엄령 상황에서 경찰의 치안 및 예비검속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던 제주도 주둔 해병대사령부는 군 트럭을 이용해 1차 1950년 7월 중·하순경, 2차 8월 중순경, 정뜨르비행장 총살과 산지향 바다 수장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인 조부와 부친을 잃은 유족과 한라산국립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잃은 유족 등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희생자가 지식인과 공무원 등 지역 사회의 지도층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 제주 예비검속 사건 담당 조사관은 “예비검속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4.3 관련 귀순자와 자수자, 석방대상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희생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제주예비검속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9. 5.	시청률	0.042

### 【총 평】

‘자연에서 찾은 해답, 친환경 바이오에너지’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재생에너지 3020, 그린뉴딜을 현장 활용사례 탐방을 통해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획이 돋보였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뉴딜 분야 가운데 바이오 에너지의 개념, 필요성, 활용사례, 전망 등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했다. 바이오에너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는가를 살피는 등 수요자 니즈와 체감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 관심을 유발했다. 특히 국민패널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을 탐방하는 구성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쌍방향 구현이라는 측면과 간접경험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구성 및 내용】

‘자연에서 찾은 해답 ‘바이오에너지’편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할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및 바이오매스의 원료, 바이오 에너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식량난 관점에서의 우려, 수송연료 및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에너지의 미래를 통해 ‘뉴딜’의 필요성을 부각한 구성이 돋보였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환경친화적 뉴딜 정책으로서의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쿄올림픽 메달이 폐휴대폰 추출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했다.

충남 청양군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방문했다. 축산농가의 돼지분뇨는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했는데,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조성되면서 가축분뇨의 처리가 용이해졌다. 특히 분뇨 냄새가 줄어 민원이 감소했고 축사 주변 마을도 깨끗해졌다. 돼지분뇨가 전기에너지로 변신하여 에너지자립마을이 되었고 일자리 또한 늘었다. 그리고 저탄소축산업의 선도마을로서 새로운 그린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창출은 이제 상용화단계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발생량의 10%만 바이오가스화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 활용사례 등 해외동향을 소개한 점도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의 현주소를 관망할 수 있었다.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효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당면 과제 등을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바이오에너지의 확대는 탄소중립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늘려야 하는데 해양 바이오에너지 사용이 요구된다. 특히 미세조류는 육상의 바이오매스보다 성장률이 50배 이상이다.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등의 화학제품들을 바이오매스 공정을 통한 그립화합물로 대체할 수 있다.